

# 일자리안정자금 300인 미만 기업까지

고용위기지역 군산시 지원 대상 대폭 확대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된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개선의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고

동안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은 300인 미만의 기업까지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군산지역에 소재한 300인 미만의 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며 올해 7월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요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및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되고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금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

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5일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국화축제, 무료로 즐기는 방법

익산시가 전국 대표 가을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성공을 위해 전북투어패스와 손을 잡는다. 익산시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인 ㈜레저큐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전북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해 축제기간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에 한해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특별전시관 무료입장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작년에만 6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오는 12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화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축제장 일부 구간에 전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익산을 찾으시는 관광객 여러분이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함께 전북투어패스의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군산시는 공직사회 성 평등 의식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관과 소 및 읍면동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반영해, 공공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요인을 줄이고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조혜경 강사를 초청해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성 평등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고대성 가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우체통거리' 새 관광명소 급 부상

벤처마킹 방문 쇄도 신규창업 점포수 확대



전국 최초로 조성된 군산시 우체통거리

군산시가 지난 2016년 지역주민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우체통거리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모사업에서 우체국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도란도란 공동체'가 참여하면서 원도심 중앙로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지역 활성화 및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모범사례로 부각되며 관광객과 함께 타 시군 지자체, 기관 겸학 등 벤치마킹 방문(78회, 2,266명)이 쇄도하고 있고 거리 조성 후 빈 점포 감소와 함께 신규창업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체통거리에는 캐릭터 우체통과 특색 있는 경관조명, 아트월 등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어 거리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제1회 손편지 축제'를 개최해 손편지 쓰기, 우체부 아저씨 체험, 공예 체험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의 얼굴이 담긴 특별한 우표를 붙여 고향에 손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 외국에서 감사편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우체통거리 주민들은 매주 수요일을 '환경정화 운동의 날'로 정해 우체통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속적인 소규모 재생사업

을 통해 2020년까지 우체통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기업 및 홍보관을 건립해 우체통거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병선 도시재생과장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주민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과 함께 우체통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11일 전국체전 성화 봉송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를 발원 성화가 지난 3일 강화도 마니산과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돼 오는 11일 근대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군산을 달린다. 특히 이번 성화 봉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성화를 동시 봉송하며 8일부터 전북도청에서 동시봉

송이 시작돼 정읍, 김제, 부안을 거쳐 11일 군산시청 광장 앞에서 성화를 인계받아 환영행사를 갖고 구간별 봉송이 이뤄질 계획이다. 환영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군산시체육회 임원, 시청 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 참여해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할 예정이다. 성화 봉송 구간은 군산시청에서 신송사거리까지 주요 사거리 4개 구간

으로 구간별 10명씩 총 4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주자들이 참여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15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의미 있는 전국체전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상황 속에서 군산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육아나누기로 행복더한다 제4회 가족놀이축제 성료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5일~6일간 행사 '호평'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제4회 육아나누기 행복더하기 가족놀이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족놀이축제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매년 준비해 영유아 가족들의 뜨거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태풍 콘데이의 영향으로 전년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연합회와 준비한 숲 체험 프로그램 및 육아 플라마켓 등의 부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기도 했지만, 숲 체험 프로그램은 채소 모종심기로, 육아 플라마켓은 원광보건대학교 내부 체험 부스로 변경해 내부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 요리체험, 미술체험, 놀이체험관 무료 이용 등 영유아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 영유아 가족들의 축제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단 눈사람은 영유아 뮤지컬 공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족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영유아들의 오감을 발달시키기 위해 준비한 삼색 구슬 딱지치기 만들기, 비누 만들기, 탁구공 놀이 만들기, 종이 펄펄 날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 시작과 동시에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요리 체험 프로그램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몸에 좋은 과일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모든 회기가 예약 개시와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검증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광보건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풍성한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 먼저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됐던 솜사탕 및 팝콘 부스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컵 과일 만들기 체험부스를 추가했으며,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폭력 예방 인형극 및 바랍개비 만들기 준비해 다양한 성 교육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또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만들기 재료와 작품을 판매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플라마켓을 운영해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영유아들에게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 기회를 제공해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시 관계자는 "육아가 즐거운, 아이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4회 육아나누기 행복더하기 가족놀이축제를 익산 시민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익산시민의 육아를 나누고 다양한 영유아 가족이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주, 야간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간제보육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시로 거듭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hildcare.iksan.go.kr>) 또는 전화(☎063-859-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